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일~3월 3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일~3월 31일

대내경제 93

<공식경제>

1월에 이어 2월 및 3월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2016년 국가예산지출이 증가한 북한

<시장 및 물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물가 및 환율

<관광>

본격적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북한

<기타>

북한, 자강력 제일주의 강조

북한의 새로운 경화획득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휴대전화 시장

대외경제 97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2270호 발효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북중관계>

중 북부 항구 석탄무역, 대북제재로부터의 영향은 제한적

중, 잉커우항 북한 선박 전면 금지

중국 내 북한식당, 방문 고객 수 급감으로 영업난 경험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남북교류 101

<대북제재>

한국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북한당국의 대응

대내경제

<공식경제>

데일리한국(3.3), CBS노컷뉴스(3.14, 3.26), 아시아경제(3.31)

1월에 이어 2월 및 3월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북한이 『민중조선』과 『로동신문』을 통해 1월에 각 부문별 경제성과가 계획 수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2월 및 3월 초에도 3월 3일과 13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각 부문별로 계획분을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함. 북한은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70일 전투’를 벌이고 있음.

<2016년 2월 및 3월 부문별 경제실적>

부문	경제실적
전력	· 2월 계획분보다 6.2% 초과 생산 · 3월 10일까지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훨씬 초과완수 했다고 주장 · 3월 한 달 동안 계획을 일 평균 106% 수행
기계 공업	· 70일전투 전에 비해 변압기 108%, 전동기 102%, 발전기 150% 생산계획을 수행
금속	· 2월 계획분보다 8~9% 초과 생산
철도 화물운송	· 2월 계획분보다 2.2% 초과 생산 · 70일전투 전에 비해 화차회귀일수를 단축하고 화물수송량을 108% 늘림
임업	· 2월 계획분보다 10.4~14.4% 초과 생산
기초 식료품	· 2월 계획분보다 17% 초과 생산
어업	· 2월 계획분보다 1.5배 초과 달성
비단실과 담요 생산	· 2월 계획분보다 1.4배 초과 달성
일반천	· 2월 계획분보다 1.2배 초과 달성
석탄 생산	· 2월 계획분보다 14% 증가 · 3월 10일까지 열흘간 생산계획이 113% 넘쳐 수행 · 3월 한 달 동안 일 평균 117% 수행
철강 및 철광 생산	· 3월 10일까지 천리마제강연소의 압연강재 생산실적이 계획의 132% · 3월 10일까지 재령광산의 일정계획수행을 평균 1.5배 이상 · 3월까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주제철 생산계획을 일평균 124% 수행

자료: 『데일리한국』, 2016. 3.3, 『CBS노컷뉴스』, 2016. 3. 14; 2016. 3. 26 기사 내용 표로 정리.

2016년 국가예산지출이 증가한 북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월 31일 작년보다 5.6% 늘어난 2016년 국가예산지출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함. 이 지출안은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라는 명으로 채택되었음.

이 확정안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로 2015년

15.9%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음. 북한은 본래 매년 4월 대의원 수백명이 참가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대대적으로 열고 예결산 심의 등을 실시하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함.

〈북한의 2016년 국가예산지출안〉

분야	내용
국가예산지출	2015년 대비 5.6% 증가
국가예산수입	2015년 대비 4.1% 증가
중앙예산수입	2016년 수입 76.8% 차지
지방예산수입	2016년 수입 23.2% 차지
국방비	2016년 지출 15.8% 차지
공업	2015년 대비 4.8% 증가
농업	2015년 대비 4.3% 증가
수산	2015년 대비 6.9% 증가
기본건설	2015년 대비 13.7% 증가
산림	2015년 대비 7.5% 증가
과학기술	2015년 대비 5.2% 증가
교육	2015년 대비 8.1% 증가
보건	2015년 대비 3.8% 증가
체육	2015년 대비 4.1% 증가
문화	2015년 대비 7.4% 증가

자료: 『아시아경제』, 2016. 3. 31 기사 내용 표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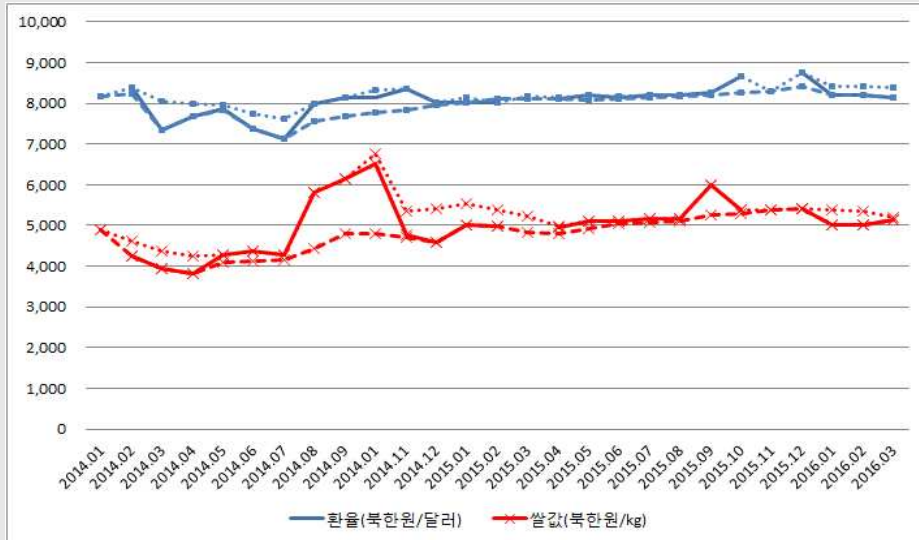
〈시장 및 물가〉

뉴데일리(3.10), 서울경제(3.14)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물가 및 환율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물가와 환율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러 보도가 있음. 『뉴포커스』 해산 통신원에 따르면 북한시장 쌀 가격은 놀랍게도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작년 농사가 잘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짐. 『DailyNK』 또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부의 시장물가와 환율이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품목도 있다고 함.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일부 광물 이외 물품은 정상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2014년 이후 월별 북한 시장 쌀가격 추이〉



자료: 『DailyNK』 제공 시장 환율 및 쌀 가격을 월별 가격으로 환산함.

〈관광〉

노컷뉴스(3.18, 3.28), 헤럴드경제(3.19), MBN(3.20)

본격적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북한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대북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문 관광 여행사들은 다양한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음.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우리투어스’는 지난 15일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평양 일일 관광을 출시했다고 함. 스웨덴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코리아 콘솔트’와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도 내년 4월 9일 개최 예정인 ‘2017년 평양마라톤’에 참가하는 관광상품을 벌써부터 출시함.

매년 4월 개최되는 평양국제마라톤대회와 4월 15일 태양절 행사는 북한의 한 해 관광 수익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까지 주장되고 있는데, 이번 2016년 평양마라톤에 출전하는 외국인 규모가 1,2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리투어스’의 안드레아 리 대표의 발언이 있었음. 유엔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무역 활동을 막는데 무게를 두고 있을 뿐 북한 관광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관광산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기타>

민주조선(3.11), Foreign Policy(3.17)

북한, 자강력 제일주의 강조

『민주조선』은 수입병을 없애는 것이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수입병을 없애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간직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자강력 제일주의를 다시금 강조함.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강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북한의 새로운 경화획득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휴대전화 시장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및 철광석의 단가 하락과 더불어 최근 한층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경화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휴대전화 시장이 노동력 수출, 관광 사업 등과 더불어 북한의 새로운 경화획득 수단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현재 북한의 10% 정도인 3백만명이 휴대전화 가입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당국은 매년 200~400백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함. 또한, 작년 7월을 기준으로 북한이 이집트 통신회사와 합작한 고려링크가 보유한 현금예금은 공식 환율 기준으로 6.5억달러이며, 작년 1~9월까지의 영업이익이 1.7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함. 북한은 오라스콤이 수익금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독자적인 통신회사인 ‘별’을 설립하는 등 휴대전화 시장을 통한 경화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외경제

<대북제재>

Voice of America(3.2), 중국 석유·화학 시장 정보서비스(安迅思)(3.7), Voice of America(3.17), 중앙일보(3.20), 참고소식망(參考消息)(3.21), The National Law Review(3.22)

유엔안보리,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2270호 발효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2270호를 발효함. 주요내용은 모든 화물 검색을 통한 무기 금수조치, 금지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가담한 북한 외교관 및 기관 추방, 북한 광물의 수출 금지 및 제한, 회원국이 보유한 북한 은행 계좌 동결, 사치품 목록 확대 등임.

<UN 안보리결의 2270호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i>grave hardship</i>)에 깊은 우려 표명 ·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거래로 얻는 소득이 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
우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 금지(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제5항)
무기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소형 무기(<i>small arms and light weapons</i>) 수입 금지(제6항) ·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임을 명확화(제7항) · 북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금수 적용(제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인도주의·민생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자문관 초청 등 금지 (제9항)
제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제10항) ·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화(제12항)
확산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제13, 1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UN 관련 목적·사법절차상 필요성·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 제재 개인·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대표 추방(제15항) · 북한의 위장회사 활용에 주목, 제재위가 관련 개인·단체를 규명해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 토록 지시(제16항) ·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방지(제17항)
해운·항공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영토 내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제18항)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제1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민생목적·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 제재위에 사전 통보시 ·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보험제공 금지(제2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민생목적·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 제재위에 사전 통보시 ·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제2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비상착륙 · 제재 대상자 소유·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의 회원국 입항 금지(제22항) · OMM 선박(31척)이 자산동결 대상임을 확인(제23항)
생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화학·생물무기 포기 결정,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이행 및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가입·이행 촉구(제24항)

분야	주요 내용
수출통제	·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가능한 물품 목록 확대, 생물·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제25, 26항) ·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의무화(제27, 28항)
대외교역	· 북한의 석탄·철·철광 수출·공급·이전 금지(제29항) - 예외: 민생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 통해 수출하는 경우 · 북한의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 수출 전면금지(제30항) · 대북 항공유(로켓연료 포함) 판매·공급 금지(제31항) - 예외: 해외 북한 민항기의 귀국용 재공유,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재위 사전 허가시
금융	· WMD 관련 북한정부·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재원 이전 금지(제32항) - 예외: 외교공관, 인도적 활동 ·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제33항)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제34항) · 90일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제35항) - 예외: 인도지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유엔활동 등 ·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격·사적 금융지원 금지(제36항) · 금(gold)의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제37항) · FATF 권고 7 이행 촉구(제38항)
사치품	· 예시목록에 7개 품목 추가(모두 12개 품목으로 확대) (제39항)

주: 이탤릭체는 신규 제재 요소임.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 2016. 3. 3.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동 제재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독자적으로 가한 경제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도 제재 대상이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동안 대북제재의 구멍(loop-hole)으로 불리던 북한의 노동력 수출에 대한 제재도 추가됨. 때문에 동 행정명령이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미국의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금융제재	자금출 차단 ·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구매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hard currency) 획득을 차단 · 핵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및 개인 제재
제재 대상 처벌	·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조달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음
제재의 범위	·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쉽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음
기타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검토와 김정은의 책임을 검토할 것을 촉구 ·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KDI 정리.

〈북중관계〉

중국 석유·화공 시장 정보서비스(安迅思)(3.7), Radio Free Asia(3.18), 참고소식망(參考消息)(3.21)

중 북부 항구 석탄무역, 대북제재로부터의 영향은 제한적

「중국 석유·화공 시장 정보서비스」에서는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 북부 지역 항구는 이번 대북 제재로 인해 받은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도함. 해당 지역의 무역상에 의하면 북부 일부 지역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단둥항에는 여전히 북한산 석탄이 들어오고, 일조항의 경우 북한 석탄 선박이 정상적으로 입항하고 있다고 말함. 중국은 주로 북한과 베트남에서 무연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1,958만 톤으로 중국 전체 석탄 수입량의 10%수준임.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철강 및 화학 비료 산업의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임. 또한 중국 자체의 석탄 생산량이 큰데다 북한의 무연탄을 대체할 다른 국가의 품종이 많아 대북제재가 중국 무연탄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전함.

중, 잉커우항 북한 선박 전면 금지

중국 「참고소식망」은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항(營口港)이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보도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에서 북한산 석탄·철광석 등 광물자원의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미사일 개발과 관계없는 민생 목적의 선박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비교해 한층 엄격한 조치임. 중국은 그동안 제재로 인한 북한 체제의 와해를 우려해 엄격한 제재를 원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제재 이후에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 해왔음.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자제를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임.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만한 강한 제재에는 여전히 신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강경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산둥성 르자오(日照)항 등 다른 석탄 수입항에서도 입항 전면 금지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중국 내 북한식당, 방문 고객 수 급감으로 영업난 경험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보원에 따르면 북중 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 내 북한식당에 방문 고객이 급감함. 연변 내 대부분의 북한식당들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장소를 옮겼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북한식당들이 결국에는 폐업하였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연합뉴스(3.2), 시사일보(3.28), CBS노컷뉴스(3.31)

아래 표는 3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러시아	2016년 3월 1일	밀가루	2,500톤	러시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에 지원한 400만 달러로 구입된 것으로 3월 1일 남포항에 도착함.
캐나다	2016년	지원금	200만달러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보건 사업에 각각 150만달러와 50만달러 지원
프랑스 (프리미어 위장스)	2016년	유제품 축산업 기술전수	132만달러	EU로부터 지원 받아 3개년 식량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

남북교류

<대북제재>

Voice of America(3.8), 조선일보(3.9), 연합뉴스(3.10)

한국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북한당국의 대응

정부는 8일에 2010년 5·24조치부터 올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 및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내놓았음. 해당 제재로 인해 그동안 한국-북한-러시아 간 추진되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됨.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북한산 물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 다만 남북경제교류가 이미 회복한 상태인 만큼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 제재안은 ‘실효’ 보다는 ‘상징’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

한편 북한당국은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맞서 북한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함. 북한은 이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함.

<한국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금융제재	·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 단체 30개 금융제재 · 우리 국민과의 외환거래 · 금융거래 금지, 국내자산 동결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 차단
해운통제	·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180일 이내 국내 입항 전면 불허 ·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 금지 · 북한의 제3국 편외척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 외국 선박의 북한과의 운송계약 및 기항 기피 · 2015년 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 주로 철강, 갑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
수출입 통제	· 북한산 물품의 국내 위장반입 차단 · 2010년 5·24 조치 이후 2015년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적발 ·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 작성·통보	· 여타국의 UN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기여
영리시설 이용자제	·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이용 자체 당부	· 북한의 외화수입 차단 효과 ·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 운영, 연간 수익 1,000만달러 내외 추정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 2016. 3. 8.

기사 원문 리스트

- [2016.3.01] 러시아 대북 지원 밀가루 2천500t 남포항 도착 **(연합뉴스)**
- [2016.3.02] New UN sanctions on North Korea **(Voice of America)**
- [2016.3.03] 北, 5월 당대회 앞두고 "2월 경제계획 초과달성" 주장 **(데일리한국)**
- [2016.3.07] 北方港口煤炭装卸受朝鲜制裁影响到有多大? **(安迅思)**
- [2016.3.08] South Korea Sanctions Halt Russian Rail Project with North Korea **(Voice of America)**
- [2016.3.09] 정부 對北제재안, 효과보다는 의지 실었다 **(조선일보)**
- [2016.3.10] 北 쌀값은 내리고, 밀가루 가격은 폭등...왜? **(뉴데일리)**
- [2016.3.10] 북한 "모든 남측 자산 완전 청산" 선언...조평통 담화 **(연합뉴스)**
- [2016.3.11] 수입병을 없애는것도 사회주의 수호전이다 **(민주조선)**
- [2016.3.14] 北 매체, "70일 전투 10여일 동안 공업 생산 1.2배 성장" **(CBS노컷뉴스)**
- [2016.3.14] "국제제재에도 북한 물가·환율 안정세" **(서울경제)**
- [2016.3.17] Obama Introduces New Sanctions on North Korea, Targets Trade Partners **(Voice of America)**
- [2016.3.17] North Korea's silent hard currency source: That cellphone business with Orascom **(Foreign Policy)**
- [2016.3.18] North Korean Restaurants in China Struggle to Increase Customer Numbers **(Radio Free Asia)**
- [2016.3.18] 北 전문여행사, "대북 제재 불구 다양한 관광상품 선보여" **(CBS노컷뉴스)**
- [2016.3.19] 北, 대북제재 빈틈 노린 관광으로 외화벌이 노력 지속 **(헤럴드경제)**
- [2016.3.20] '평양 마라톤'부터 '태양절' 상품까지...북 관광 '고덕없어' **(MBN)**
- [2016.3.20] "북한산 석탄 수입항인 중국 잉커우항, 북한 선박 입항 전면 금지" **(중앙일보)**
- [2016.3.21] 中国对朝制裁下重手：营口港禁止一切朝鲜船只入港 **(参考消息)**
- [2016.3.22] Increased Sanctions on North Korea Focus on China and Russia **(The National Law Review)**
- [2016.3.26] 北, "70일 전투 한달 목표 돌파" 주장 **(CBS노컷뉴스)**
- [2016.3.28] 캐나다 정부, 북한 취약 계층 위해 2백만 달러 지원 **(시사일보)**
- [2016.3.28] 北, "평양국제마라톤대회 4월10일 개최" **(CBS노컷뉴스)**
- [2016.3.31] 北, 올해 국가예산지출 5.6%↑...국방비 15.8% **(아시아경제)**
- [2016.3.31] 프랑스 NGO "유럽연합 지원금 132만달러로 대북사업" **(CBS노컷뉴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